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①9 -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그곳은 염전(鹽田)이었다. 바닷물이 숨 턱 밑까지 차들어 왔던 광활한 소금밭. 그 한복판에 우뚝 선 언덕에 복전(福田)을 일궜다. 산등성이엔 부처님 집을 짓고, 산기슭엔 깨달음의 발을 개간했다. '전강(田岡)'이란 법호처럼, 그리고 지금은 장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그 마음 밭을 갈고 있다.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원장 송담). 서른셋에 통도사 보살선원 조실로 추대됐을 정도로 선공을 드넓혔던 전강 선사(1898~1975)가 문을 연 참선도량이다. 매년 1백여 명의 출가자가 방부를 들이고, 1천여 명의 재가자가 보살선원과 시민선원에서 사시사철 가부좌를 틀고 있다.

그래서일까? 동안거 중인 용화사 보살선원은 '씨움터'였다. 새벽3시 기상, 4-5시, 오전 8-10시, 오후 2-4시, 저녁 7시-9시 정전에서 자신과 편하게 한 판 불은 재가선객의 낯빛은 결연했다. 구도의 칼날은 날카롭게 세고, 움켜쥔 의식은 잔득 독이 울려오았다.

머리속 모든 지식 버려라



170여 재가선객들이 12월2일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펄떡이는 화두를 잡아라

무거운 짐목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선원장 송담 스님의 육성법문에 깨졌다.

"1번 1초도 참나를 찾는데 노력하세요. 죽은 지식의 고추 먼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 봐야 깨달음 기약은 요원합니다. 화두에 골똥히 의심하고, 그래서 꼭 막혀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관조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살아 있는 참선입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 동안거 방부를 들인 재가선객 171명의 마음에 그대로 쫓았다. 쫓겨온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는다. 선지식의 보이지 않는 죽마가 1시간 내내 불을 쬐었다.

'활구(活句)참선', 용화사 수행의 고갱

1년내내 선원 문 '활짝' ...쉽없이 정진 매일 1시간 전강·송담 스님 법문 청취

이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통해 알아들여가려는 죽은 참선을 배격한다. 오직 알 수 없는 의단을 깨부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참선법이다.

그래서 송담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다 놓아 버리라고 한다. 활자하 '멍청이'가 돼야만 수행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선원에서 10년째 수행 중인 권오연(75·인천 주안동)씨는 "활구참선을 통한 공부하는 자신들과 감응을 겪을 때에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줬다"며 "화두를 들면 온갖 경계와 장애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들려라, 문득 깨치라'

'스승의 육성법문 듣기'. 용화사 보살선원의 대표적인 수행기풍 중 하나다.

1년 365일 매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살아 있는' 스승들의 법문이 선원 곳곳에 흘러나온다. 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와 송담 스님의 법문 녹취테이프 1400여 개가 5일 단위로 번갈아 틀어진다.

보살선원 임승 서봉 스님은 "육성법문은 선지식의 숨소리까지도 고스란히 현장으로 다가가 수행자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자비심을 보내고 있다"며 "이름 빨리 알려줘라 깨달음의 단초를 잡아내면 활구참선의 든든한 밑천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 재가선객들은 '육성법문 듣기'

를 통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을까? 선원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 30년째라는 김귀애(70·인천 청영동)씨는 "어느 순간 스승의 말씀 한 구절이 머리에 스쳐 닿으면, 가슴에 박힌다"며 "특히 '이렇게 놓고먹는데 애착을 가지면, 죽을 때 사지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전강 스님 말씀은 수행의 경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4년 전에 선원과 인연 맺은 최정숙(75·서울 서초동)씨도 마찬가지다. 육성법문이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녹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성법문 공부법에 소개했다.

"육성법문에 매달려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구월구월 하나에 집착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려 애쓰지 않아요. 그대로 흘러보내요. 왜냐하면 육성법문을 내일알아들이로 해석하면 스승의 참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무엇을 강조하는지' 법문의 진정성만을 느껴려고 노력해요."

답하지 않은 선원 문

용화사 보살선원은 사계절 내내 문을 연다. 하·동절기만 안겨줄 지내는 대부분의 선원과 달리 연중 내내 재가선객의 방부를 받고 있다. 여름·겨울 정기 90일 안거와 45일간 춘·추계 안거로 나눠 빈틈없이 정진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잠시도 수행을 늦추서는 안 된다"는 전강 선사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1984년 개원된 보살선원에서는 3개월간 용화사 출가대중들과 똑같이 수행을 한다. 용맹정진의 수행강도에서 만큼은 출·재가자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와함께 용화사는 보살선원 이외 시민선원을 두어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수행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032)872-6061 yonghwasunwon.or.kr
글·사진/인전=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7> 겨울산에 눈꽃이 피니

금강산은 겨울이면 이름마저 개골산(骨山)으로 바뀐다. 삼점은 모두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다는 의미다. 어디 그 산뿐이라. 모든 산에서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다. 푸미지 않는 수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본다. 이를 운문 선사는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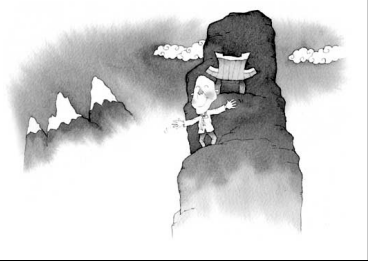
한 남자가 "나무잎이 시들어서 바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니 "양상한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대답하면서 기인한다. 찬바람에 잎이 지고 나면 나무들은 남겨야 할 것만 남겨둔다. 산도 나무도 굳어지지 않고 함께 어우러진 단아한 기풍은 선종집안의 기풍과 더불어 어울린다. 그래서 선사들의 이름에는 '설(雪)'자도 많이 보인다.

산과 나무위로 평평 눈이 쏟아지면 모두가 설산이 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산이라고 해도 손에 잡힐 듯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다. 정진은 더욱 명징해지고 두

었더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수마보다는 동(冬)장군이 공부에 훨씬 낫다. 모조리 두들겨 패서 다시 냉방으로 쫓아버렸다.

하지만 냉기는 감기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기침소리는 주변까지 공부방해를 한다. 그래서 선사들은 미리 대중들에게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한 남자들은 한철 내내 감기로 몸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늘 목에는 흰 명주 목도리가 둘러져 잔기침을 울려준다. 하지만 기침도 기침 나름이다. 고산(高山)문화의 어느 남자 기침은 그 의미에 있어서 보통 기침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산 선사가 시중(示衆)하여 말했다.



"고산 문하에서는 기침(咳嗽)을 하지 못하느니라."

이에 어떤 남승이 나와서 기침을 한번 하니 선사가 말했다.

"이게 무슨 것이냐?" "감기(傷寒)가 들었습니다."

법당서 추위에 떠는 남자들 안쓰러워 따뜻한 방서 화두 들게하니 '꾸벅꾸벅'

눈 역시 정안(晴眼)이 된다. 무주(州) 명초덕경(明招德諫)선사가 매우 추운 날 상당(上堂)하였다. 선사는 왼쪽 눈을 실명하여 '독안(獨眼)'이라고 불렀다.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과 예리한 선기는 당시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법당에 모인 대중들에게 오랜만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남자가 차가우니 여기는 그대들이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아니로다. 모두 따뜻한 방으로 가서 참구토록 하라." 그러고는 모두 법당을 나가도록 했다. 대중들은 '좋아라' 하면서 좌선에 드는가 했더니 얼마 후 모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사는 주장자를 휘두르면서 몽땅 추운 법당으로 다시 내쫓아버리며 중얼거렸다. "따뜻한 곳에 오자마자 졸기 시작하는구나."

선사의 자비로움으로 추위를 피하도록 배려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앞서서 모두 온 것이다. 대중건강이 염려돼 옮겨 주

이에 선사가 말했다. "감기라던 어쩔 수 없지."

대중초소에서 인정과 원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너무 원칙만 앞세우면 살기가 뻔뻔해진다. 그렇다고 인정에 지나치게 굽드리면 도심(道心)마저 성글어진다. 두 선사의 자비심과 원칙론의 조화는 겨울 대중살이의 증도적 측면을 소박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흰 눈이 내리는 날, 방문을 활짝 열고 좌복위에 앉아 바라보는 선경은 화두마저 저만치 놓아버리게 한다. 그래도 공부하는 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날 안주(安州) 대안산(大安山) 송교(僧敎) 선사 회상에서 오고간 단답이다. "어떤 것이 한 겨울의 경계(境界)인가?" "천산(千山)은 증수색(增秀色)하고 민수(眞樹)엔 개은화(開銀花)로다."

모든 산이 우뚝함을 더하고, 온갖 나무에는 눈꽃이 피었느니라.

원효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연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태권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동구 명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송담 스님에게 듣는 활구 참선법

송담 스님(사진)은 수행자가 활구참선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온갖 지식과 상식을 다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공부할 지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올바른 활구참선을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옳게 지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덧붙여 '이맷표'를 참구해야 하며, 앉으나 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

자세·호흡 바르게, 생각 옳게 지어아가



맷표'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속이 상할 때나 외롭고 슬플 때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났고 하자마자 탁 손을 단전까지 깊어 들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맷표',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어마셔 내쉬면서 '이맷표', 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면 가슴이 속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참나를 찾는 공부로 나아간다'고 조언한다.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클리닉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뇌척수액 순환장애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방증등의 부인병질환...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고혈압,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2006년도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8기 모집 및 범음범패 동계교육

1. 자격: 스님 및 교포교사 일반불자와 불교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및 내용 (12월 26일 - 12월 30일까지) 12월 26일: 사물타는 법(북, 태평, 목탁, 요령), 39일 신중작법, 소창물의 - 오전 10시 도착 12월 27일: 구별시식, 안택기도, 조석예불 종성 의 12월 28일: 회심곡(회창), 종사관곡,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12월 29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염반, 사다라니 바라춤. 12월 30일: 요강바라, 전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비: 300,000원정 (숙박 식비 포함) ※교재비 별도 4. 모집일시: 12월 20일까지 한함. 5. 준비물: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녹음기(소형) 6. 계좌번호: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노연숙) ※ 교육환의식 분은 미리 송금하시고 전화 바람. 7. 동선교육: 매일 2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 예수재 교육, 49재, 천도재 교육,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20개 심판원 7. 교육장소 및 문의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강의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062)362-8604 /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합장

중요무형문화재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인 해공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시기에 필요한 계정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곡 2.상주권공 지방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회창) 5.회심곡(회창)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타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회상중명불공 19.종사관곡 20.종사염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북청계전수) 29.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목건만다라선승대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염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곡(간단한 관곡)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은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회심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제품구입처: 종무소 062)362-8604 해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해공 스님